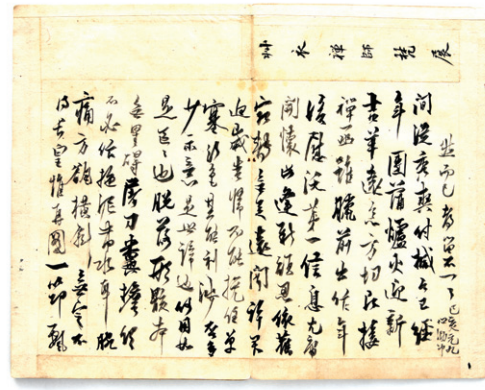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소치의 쓸쓸한 새해 귀향 소식 전해



추사의 소치의 해후 시기를 밝힌 단서 (백해태윤집)

추사와 소치 해후 시기 정경재야
“몸을 벗어내면 본래 장애 없는 것”

가. 형제(形骸·形)를 벗어내면 본래 장애가 없는 것이니 잠을 잡고 집승을 잡든 통 짐을 지든 모두 다 반드시 (일승) 시원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필이 아파서 글자 획이 빛나기 기준이 없으므로, 정황이 쓸 수 없군요. 다시 오시기를 계획하시어 지방에 하나로 표현해 달라오십시오. 모두 뒤로 미루고 일일이 쓰지 않겠습니다.己亥(1839년) 정월 9일 신희축
(昇年脚을 입었던 전후 사 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몽연록〉이 기해(1839년)에 쓴 것인 단서(백해태윤집)를 통해 비로소 밝혀진 셈이다. 특히 이 편지가 “허 소치가 새해에 작별하고 고향에 돌아가기에 다급해하지만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쓸쓸한 행색으로 잘 갔는지요. 다소 들어낸 뜻은 대목은 그의 일상적인 귀향의 시기를 밝힌 단서

이다. 실제 학계에 알려진 내용(1839년 겨울)과 이 편지의 내용(1839년 정월)과는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소치 연구의 핵심 자료는 〈몽연록(夢緣錄)〉이었다. 이 책은 소치가 진도로 귀향하여 1867년경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저술 장소는 진도의 운림각(雲林閣)이다. 그가 〈몽연록(夢緣錄)〉서문에서 “향량한 곳에서 홀로 슬퍼하며 서책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 버렸다. 뜻밖에 손님이 찾아와 다정하게 며칠을 쉬는 동안 문답한 것이 있어 이것을 엮어 〈몽연록〉이라 불렀다”라고 했다. 서울 배경은 손님이 찾아와 문답한 것을 엮었다는 그의 증언이 있고 보면 이 책은 소치의 회고록임이 분명하다. 후일 시범을 〈몽연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의 진로실 책상 위에는 항상 배알이 사지가 놓여 있다. 공필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고 공부하기 위해서다. 부처님 법을 읽어 그대로 알고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직접 배알이와 신스크리프터를 공부해 매일 니가야 정경을 읽는 철저한 수행자 전현수 박사. 불교 정안에서 지낸 그는 어린시절에는 불교가 하나의 문화였던 문화였고 한다. 이 편지 그가 불교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5년 결혼을 앞두고 만난 고이진 박사와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이날의 스승이었던 고이진 박사를 만나 한참



백통촌(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박통촌(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전현수 박사(정신과 전문의)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불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특히 ‘불교라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의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고통을 없애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름 계기로 그는 고이진 박사가 지도하는 ‘일승보살’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됐고 레지던트 2년차여서 엄청 바쁜 시기였는데 수행에 몰입하게 되었고, 그때 저를 가장 크게 지탱했던 것이 일승보살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는 세간의 현상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라는 것을 체득했죠”
그는 한 달에 한번 고이진 박사가 질문을 주면 이에 대답해서 공부하고 다음 달에 가서 답을 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때부터 괴로움을 생겼던 내 가 세상과 맞지 않는 무엇인가를 버리고 있었구나 하고 참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환자들을 돌보는데 적용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당시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훈련을 하면서도 화상을 할 정도로 열심히 수행을 할 때였죠.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군병사 치료에 적용해 봤어요. 저에게 있어 불교와 정신과 치료의 최초 융합 치료였죠”
이렇게 불교와 정신 치료는 전현수 박사의 삶을 지배하는 큰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1988년 고이진 박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전 박사의 불교 수행도 담보 상태에 이른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교와 정신과 치료의 접목을 갈망하고 있었고 이런 그에게 새로운 계기가 생기게 된다. 바로 2003년 우편다스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바로 이번 생애〉라는 책을 읽고 몸과 마음의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후 전 박사는 위빠사나 관련 서적을 상당수 읽으면서 수행시스템을 복원하고 싶다는 원을 세운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병원 문을 닫고 미얀마로 향한다.
“당시엔 정신치료와 불교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두를 극복하고 싶었고, 미얀마 양곤 참예센터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몸의 속성, 마음의 속성을 알게 됐어요”
또한 불교, 심리학, 정신의학 등을 전공하는 사람들

불교와 정신과치료 융합 발원
2009년 병원 문닫고 수행 위해 떠나
위빠사나로 몸·마음 원리 체득
환자들에게 불교 마음치료 적용

말이죠. 또 불교는 유희가 없으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전 박사는 이 과정에서는 선정을 경험해 보고 싶고 생과 생의 연결 즉 윤회를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2009년 다시 길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그는 다시 병원 문을 닫고 1년 동안 수행과 여행의 길을 떠난다. 가장 먼저 가게 된 곳이 미얀마에서 타이완에 있는 명상센터였다. 여기서 그는 6개월간 수행을 하고 선정을 경험하게 된다. “꾸준히 수행을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행을 한 것은 처음이예요. 남승과 들승을 통해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숨을 하 나도 놓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숨이 빠트려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초선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제가 목표로 하는 생과 생의 연결 즉 윤회를 아는 데에는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예요”
이후 그는 스리랑카를 거쳐 인도도 가 탐라야 라마를 전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가장 공감해 하는 윤회



2009년 병원을 닫고 수행과 여행을 제철한 전현수 박사는 인도 여행 당시 탐라야라마를 전전했다.

“마음 원리 알면 정신치료 가능”

의 모임을 만들어 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로 발전하게 된다. 경전 읽기도 꾸준히 했다. 신스크리프트와 배알이를 공부해 꼼꼼히 경전 읽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교와 정신치료 파트를 각각 나누어 파일을 만들어 나갔다.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알아 가는 과정이죠. 또한 내가 경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불교가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와 같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기도 했죠. 이런 과정 속에서 명해 주셨어요.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라는 것을 체득했죠”
그는 몸과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순간의 주어진 조건대로 움직인다고 봐요. 마음은 어떤 대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대상을 생각하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되요. 또 좋은 대상을 생각하면 좋은 대상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면 그쪽으로 길어 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수행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마타 수행은 우리 몸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마타 수행을 계속 한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한곳에 모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인 생각이 들 때 이를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수행법은 공황장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죠. 전 그들에게 하루종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라고 말했죠. 이를 꾸준히 반복해 실천한 환자는 자신의 병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결국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면 정신병을 막을 수 있고 마음치로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전 박사는 불교 수행 역시 실제로 보게 해주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초선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제가 목표로 하는 생과 생의 연결 즉 윤회를 아는 데에는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예요”
이후 그는 스리랑카를 거쳐 인도도 가 탐라야 라마를 전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가장 공감해 하는 윤회

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생과 생은 연결돼 있습니 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 탐라야 라마는 태어나 나자 마자 전생이 기억났다고 하더군요. 그는 전생을 보는 방법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또는 선정을 뒤아서 알 수 있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치적으로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수행과 여행을 통해 느낀 내용을 그는 2010년 〈마음치료가야기〉로 펴내었다. 또한 지난 해에는 생각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생각 사용설명서〉를 출간하게 된다.
“〈생각사용설명서〉는 불교가 어떻게 실제로 못 보는 것 하든지 또 생각이 없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한 일을 경험하거나 지나간 일을 재해하고 후회하는데서 괴로움을 시작되죠. 하지만 생각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보게 해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는 몸과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순간의 주어진 조건대로 움직인다고 봐요. 마음은 어떤 대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대상을 생각하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되요. 또 좋은 대상을 생각하면 좋은 대상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면 그쪽으로 길어 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수행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마타 수행은 우리 몸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마타 수행을 계속 한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한곳에 모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인 생각이 들 때 이를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수행법은 공황장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죠. 전 그들에게 하루종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라고 말했죠. 이를 꾸준히 반복해 실천한 환자는 자신의 병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결국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면 정신병을 막을 수 있고 마음치로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전 박사는 불교 수행 역시 실제로 보게 해주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초선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제가 목표로 하는 생과 생의 연결 즉 윤회를 아는 데에는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예요”
이후 그는 스리랑카를 거쳐 인도도 가 탐라야 라마를 전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가장 공감해 하는 윤회

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생과 생은 연결돼 있습니 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 탐라야 라마는 태어나 나자 마자 전생이 기억났다고 하더군요. 그는 전생을 보는 방법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또는 선정을 뒤아서 알 수 있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치적으로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수행과 여행을 통해 느낀 내용을 그는 2010년 〈마음치료가야기〉로 펴내었다. 또한 지난 해에는 생각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생각 사용설명서〉를 출간하게 된다.
“〈생각사용설명서〉는 불교가 어떻게 실제로 못 보는 것 하든지 또 생각이 없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한 일을 경험하거나 지나간 일을 재해하고 후회하는데서 괴로움을 시작되죠. 하지만 생각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보게 해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는 몸과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순간의 주어진 조건대로 움직인다고 봐요. 마음은 어떤 대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대상을 생각하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되요. 또 좋은 대상을 생각하면 좋은 대상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면 그쪽으로 길어 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수행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마타 수행은 우리 몸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마타 수행을 계속 한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한곳에 모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인 생각이 들 때 이를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수행법은 공황장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죠. 전 그들에게 하루종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라고 말했죠. 이를 꾸준히 반복해 실천한 환자는 자신의 병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결국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면 정신병을 막을 수 있고 마음치로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전 박사는 불교 수행 역시 실제로 보게 해주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초선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제가 목표로 하는 생과 생의 연결 즉 윤회를 아는 데에는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예요”
이후 그는 스리랑카를 거쳐 인도도 가 탐라야 라마를 전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가장 공감해 하는 윤회

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생과 생은 연결돼 있습니 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 탐라야 라마는 태어나 나자 마자 전생이 기억났다고 하더군요. 그는 전생을 보는 방법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또는 선정을 뒤아서 알 수 있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치적으로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수행과 여행을 통해 느낀 내용을 그는 2010년 〈마음치료가야기〉로 펴내었다. 또한 지난 해에는 생각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생각 사용설명서〉를 출간하게 된다.
“〈생각사용설명서〉는 불교가 어떻게 실제로 못 보는 것 하든지 또 생각이 없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한 일을 경험하거나 지나간 일을 재해하고 후회하는데서 괴로움을 시작되죠. 하지만 생각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보게 해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는 몸과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순간의 주어진 조건대로 움직인다고 봐요. 마음은 어떤 대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대상을 생각하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되요. 또 좋은 대상을 생각하면 좋은 대상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면 그쪽으로 길어 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수행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마타 수행은 우리 몸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마타 수행을 계속 한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한곳에 모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인 생각이 들 때 이를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수행법은 공황장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죠. 전 그들에게 하루종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라고 말했죠. 이를 꾸준히 반복해 실천한 환자는 자신의 병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결국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면 정신병을 막을 수 있고 마음치로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전 박사는 불교 수행 역시 실제로 보게 해주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초선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제가 목표로 하는 생과 생의 연결 즉 윤회를 아는 데에는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예요”
이후 그는 스리랑카를 거쳐 인도도 가 탐라야 라마를 전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가장 공감해 하는 윤회

전현수 박사는... 전현수 박사는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의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 1990년에 전현수신경정신과위원을 개원했다. 불교와 정신과 치료의 융합을 시도하면서 그는 2003년에는 한 달간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했으며 2007년에는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를 만들었다. 2009년 3월부터는 1년간 병원 문을 닫고 수행과 여행 그리고 글쓰기로 시간을 보냈다. 저서로는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 치료 이야기> <생각사용설명서> 등이 있다.



2003년 미얀마 양곤에서 수행을 하고 비구가 되어 생활했던 전현수 박사의 탁발 모습.

전범일기

회비제, 전범의 기반

정말 어렵 줄 몰랐다. 처음에 출가할 때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범정 스님처럼 그렇게, ‘맑고 향기롭게’ 살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신도들이 범정 난방기를 켜두고 가면 그걸 보면서 나는 불평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는데도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가면 그걸 닫으면서 중얼거렸다. 수도꼭지가 덜 잠겨 물이 흐를 때도, 가스 밸브가 덜 잠겼을 때도, 대낮에 전등을 끄지 않았을 때도 내 인상은 굳어졌다.
일반인들은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사실 절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연료를 넣어야 가는 자동차처럼. 불전에 갖가지 공양물도 올려야 하고, 너무나도 음식도 먹어야 한다. 적인 월급,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 연료... 지출은 쏠쏠하게 많았다. 게다가 어린이·청소년보호까지.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기도비로 절을 운영한다. 절원과 초파일, 백중 때 목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한 해 살림을 산다. 지출 때문에 실패하면 빚을 져야 하고 살림살이에 허덕거리야 한다. 그럴 때 들어오는 재비(齋費)는 거품에 대비와 같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었다. 주지를 맡으면서 ‘맑고 향기롭게’ 사는 건 이미 물 건너갔지만 최소한 허덕거리며 살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회비제’였다. 대다수의 개인교인이 한다면 심플도 같은 건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 내린 백일기도는 물론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도, 유원불생 영가천도 49세, 음력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신중기도, 정월 대보름 방생, 연회 상사 신도들 찾아보길 힘들다.

전범일기

회비제, 전범의 기반

정말 어렵 줄 몰랐다. 처음에 출가할 때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범정 스님처럼 그렇게, ‘맑고 향기롭게’ 살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신도들이 범정 난방기를 켜두고 가면 그걸 보면서 나는 불평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는데도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가면 그걸 닫으면서 중얼거렸다. 수도꼭지가 덜 잠겨 물이 흐를 때도, 가스 밸브가 덜 잠겼을 때도, 대낮에 전등을 끄지 않았을 때도 내 인상은 굳어졌다.
일반인들은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사실 절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연료를 넣어야 가는 자동차처럼. 불전에 갖가지 공양물도 올려야 하고, 너무나도 음식도 먹어야 한다. 적인 월급,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 연료... 지출은 쏠쏠하게 많았다. 게다가 어린이·청소년보호까지.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기도비로 절을 운영한다. 절원과 초파일, 백중 때 목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한 해 살림을 산다. 지출 때문에 실패하면 빚을 져야 하고 살림살이에 허덕거리야 한다. 그럴 때 들어오는 재비(齋費)는 거품에 대비와 같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었다. 주지를 맡으면서 ‘맑고 향기롭게’ 사는 건 이미 물 건너갔지만 최소한 허덕거리며 살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회비제’였다. 대다수의 개인교인이 한다면 심플도 같은 건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 내린 백일기도는 물론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도, 유원불생 영가천도 49세, 음력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신중기도, 정월 대보름 방생, 연회 상사 신도들 찾아보길 힘들다.

주지 스님은 살림꾼이었다



그림·박구원

기도비의 변형된 형태
회비제 도입 재정난 이겨
나눔과 문화축제 ‘풍성’

나는 그렇게 살기 싫었다. 주지를 맡으면서 ‘맑고 향기롭게’ 사는 건 이미 물 건너갔지만 최소한 허덕거리며 살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회비제’였다. 대다수의 개인교인이 한다면 심플도 같은 건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 내린 백일기도는 물론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도, 유원불생 영가천도 49세, 음력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신중기도, 정월 대보름 방생, 연회 상사 신도들 찾아보길 힘들다.

를 내면 범정 일만년도 그냥 흘러주었다. 백중 영가 위패와 인등을 빼고는 전부 포함시켰다. 신도들도 좋아했다. 신성 스경이 없어도 되고 경제적이란 이유로.
2009년, 회비제를 시작하자 1년 만에 되었을 때 93명이었다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평균 150명의 신도가 동참했다. 재정이 점차 안정되어 가면서 나눔과 전범에 대한 지출액수도 더 늘릴 수 있었다.
그러하여 지금은 매주 일요일 50~7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범회에 참석하고 있고, 배드민턴 대회 때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이루어진다. 정월 대보름이든 훗날이든 때는 도량이 주민들로 넘쳐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 때는 1천 명 이상의 주지가 절에 모여 흥겨운 시간을 갖는다. 해인스님 초빙법회 때는 무려 3천 명이나 참석했었다!
나중에 있어서는, 한 달에 세 번 어르신 공양과 독거노인 대상 반찬 도시락 배달, 매 분기마다 시행하는 영정 사진촬영,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부처님 오신날 장학금,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비의 쌀 나누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교육 지원, 자비의 김장 나누기, 팔초 나누기... 우리 절에는 사람들이 무서로 드나들고 신도들은 절 곁으로 그들을 맞이한다.
나는 늘 분주하게 산다. 내 삶이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간다.
한복 스님(재정혁신 대구 보성선원 주지)



한복 스님(재정혁신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이제 그만!
영구위패

찬덕불교
LED 전구

영구위패
LED 전구

* 사찰영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인등증강장치 天上列車
* 이는 범정 인등 설치도 버린 하나로 해결하세요.

인등 증강장치_흥은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kwh

영구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신희문 수당 2리 261-6 / 전 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취급품목: 인등 · 주불등 · 전선전구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음의 손으로 쓰는 Diary

마음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 가격 : 1권 13,000원 (택배비 별도)
■ 문의 : 02)2004-8215

2013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달 생황의 지침이 될 법어·일승회백·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해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상·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웁시다. 한 주의 시작을 필요일부/ 자신을 완성시키는 여섯 가지 기적인 율리마라와 지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주세요-